

3당체제 굳히기나 與野 양당 재편이나

뉴스 초점

야권발 정계개편 시작될까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이 6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보수야권이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른정당의 분당에 이어 자유한국당과 부분 통합으로 진행되는 보수야권 재편이 중도 정당, 나아가 여당 등 정치권의 연쇄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호남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주장해온 이른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발표한 '통합성명서'를 통해 탈당을 공식화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밤 마지막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진로를 논의했지만 통합파와 자강파의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파국을 맞았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9일 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수야권 재편을 바라보는 호남정치권은 아직은 답답한 모습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원 수가 늘었지만 아직 제1당은 여당인 민주당이고, 국민의당도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인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바른정당 분당이 중도 또는 여당의 재편 등 본격적인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일단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합류하면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121석), 한국당(116석), 국민의당(40석) 순이 된다. 한국당이 여당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만약 바른정당 잔류파 의원들 중 추후 합류자가 나타날 경우 여당과 제1야

바른정당 9명 탈당 한국당행

제3당 역할 커진 국민의당

안행보 따라 분열 가능성도



당의 대립구도는 더욱 확실해지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인위적 정계개편보다는 국민의당과 적극적 정책연대를 꾀하며 한국당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도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적으로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으로서의 당장 보수야권의 재편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제3당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서 더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자강파와 주요 사안별로 연대를 한다거나, 민주당과 한국당 중 누구와 손을 잡는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정책 과제의 성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제3당의 입지가 여정정하게 된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에서 벗어날 경우 양당구도로의 편입을 노리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거나 호남의 민심과 괴리되는 정치행보를 할 경우 호남 정치권은 양동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현 정치권의 상황을 보는 안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 간 시선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당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보수야권 재편에 따라 당장 당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며 "이런 사태가 중도 통합 또는 여권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호남의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입동...성큼 다가온 겨울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나주시 '남평은행나뭇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란 은행잎이 쌓인 숲길을 아이들과 걸으며 즐겨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5·18암매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지시

기념재단 3공수 소령 진술 공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자행된 암매장이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지시였다고 확인됐다.

지역 5월 단체 관계자들은 군부대 지휘체계 특성상 신군부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암매장까지 진두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5·18기념재단이 1995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 '12·12 및 5·18 사건' 조사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소속 김보 소령이 했던 진술을 6일 공개했다. 김 소령은 교도소 부지 암매장 조사 계기가 된 약도를 작성했던 당사자다.

김 소령은 진술 조사에서 '시체를 인계받아 가매장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정보참모로부터 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가매장할 장소를 제가 물색했고, 저희 본부대 병력들이 의무대로 가서 시체를 운반해 와서 매장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3공수 여단장은 최세창 준장으로, 암매장 지시가 조직적으로 뒷전에서 지시가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월 공개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면담보고서에서는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에서 민간인 버스에 총격을 가했던 11공수여단 부대원들이 5·18 직후 암매장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당시 검찰 조사는 내란죄에 치중했기 때문에 암매장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37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역 기초의원 65명 중 21%

임기 3년간 구정질문 단 한번도 안했다

구청(區政) 견제, 자치구 예산 수립 및 집행 감시를 해야 하는 구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인 구정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의 받고, 운영비로 수익원의 할부가 투입되고 있는 기초의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초의원 65명 중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1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회와 광산구의회, 서구의회 의원 중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병어리 의원'들이 많았다. 구정 질문은 기본적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구정장과 실·국장상을 상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직접적인 행정감사 행위라는 점에서, 구정 질문이 없는 것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1인당 287만~336만원에 이르는 의원활동비·월정수당 등은 물론 한 해 6억~17억원에 이르는 기초의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구정 질문 한 번도 하지 않은 구의원들이 어떻게 구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광주지역 구의원 1명이 3년간 평균 1.7차례의 구정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지역 기초의원 65명은 지난 3년 동안 112회의 구정 질문을 했고 이는 1인 평균 한 해 0.57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동구의회 8명 의원 중 지난 3년간 전원 의원 4회로 가장 많은 구정 질문을 했다. 박종근·홍기월·박대현 의원이 각 한 차례 임을 열었고 다른 4명의 의원은 구정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 또 광산구의회 전체 의원 16명 중 6명, 서구의회 13명 중 3명, 북구의회 19명 중 1명이 임을 담은 채 지난 3년을 보냈다. 남구의회는 10명의 의원이 모두 구정 질문을 통해 남구정을 견제했다. 나경서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기존 지방정치 폐해로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은 자치의 무대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 2일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 송호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우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비
-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일정표상 식사3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사에서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여행사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츰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국내여행·할인항공권·KTX기차표·허니문·단체여행·골프투어·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현지사정(기상변화) 및 열차 사정에 의해 시간 및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